



임시 핀 임프란트에 의한 부분 무치악 증례별 Immediate loading 임상례

강 주 성*, 이 성 복, 권 공 록, 우 이 형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임프란트 시술이 대중화 된 이후 임프란트는 상설치 수복에 있어서 치과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단일치 결손에서부터 광범위한 결손 혹은 무치악 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프란트 시술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기능적 심미적 장애를 피할 수 없었다. 물론 치유 기간 중에 기능적, 심미적 목적을 위해 가철성 혹은 고정성 임시수복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임프란트의 노출이나 초기고정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정립된 개념은 임프란트 식립후 3~6개월 간의 non-loading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가능한 빨리 기능적 부하를 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만큼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또한 생물학적으로도 bone healing 이루어지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즉시 부하나, 조기 부하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주로 하악 무치악 증례에서 cross arch stabilization을 얻을 수 있는 경우로 그 적응증에 제약이 많았다. 특히 완전 무치악 증례 보다 부분 무치악 증례가 훨씬 증례가 많은데도, 위험성 때문에 부분 무치악 증례에서 즉시 부하를 가하는 시도는 별로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임시 핀 임프란트의 식립과 임시 수복물의 제작은 본체 임프란트가 안전하게 골융합이 완성될 때 까지 본체 임프란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즉시 부하에 대한 모든 불확실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또한 본체 임프란트와 임시 핀 임프란트를 동시에 식립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의 수술로 모든 과정이 완료되며, 연조직 봉합 후 미리 제작된 임시 수복물로 즉시 저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술식은 완전 무치악 증례 뿐만 아니라 부분 무치악 증례에도 폭넓게 적용시킬 수 있다.

이에 임시 핀 임프란트를 이용하여 상악 전치부, 하악 전치부, 상악 구치부, 하악 구치부의 다양한 부분 무치악 증례에서 본체 임프란트와 임시 핀 임프란트를 동시에 식립하고 임시 수복물을 장착하여 수술 후 즉시 기능적 부하를 가한 4가지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임프란트 시술의 최대 단점인 치유기간 동안의 심미적 기능적 장애를 해결할 수 있었다.